

글로벌무역으로서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과 일본인의 교역*

-대항해시대의 유럽의 가톨릭포교와 무역을 중심으로-

이 덕 훈**

(e-mail: ldukhoon@hanmail.net)

目次

1. 시작하는 말
 2. 마닐라 갈레온의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3. 대항해시대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시아진출
 4. 글로벌화의 시초로서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등장
 5.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
 6.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일본인
 - 6-1.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서양접촉과 정책
 - 6-2. 이에야스(徳川家康)와 마닐라 갈레온 무역
 7. 맺는말
-

1. 시작하는 말

스페인왕실의 지원을 받은 포르투갈의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1521년 필리핀의 사마르(Samar) 섬에 상륙한 뒤, 약40여년이 지난후 스페인의 식민지인 누에바 스페인(멕시코)에서 파견한 레가스피(Miguel López de Legazpi)는 1565년 비사야와 루손에 식민 정착지를 ‘가톨릭의 십자가아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래' 구축 하였다. 이 섬의 국명을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던 펠리페 2세 (Felipe II)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Philippines)으로 정하고, 마닐라에 총독을 두어 328년간이나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된다.

레가스피는 초대 필리핀총독(1565-72)으로 임명되었으나, 필리핀에서는 스페인이 기대했던 향신료와 신대륙에서 발견되었던 금, 은 등의 귀금속의 광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스페인 식민지통치에 의한 징수수입만으로는 가톨릭포교와 원정, 전쟁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스페인의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 마닐라-아카풀코 갈레온 무역(Manila-Acapulco Galleon Trade) 이었다³⁾.

스페인 식민지 필리핀과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사이에 이뤄진 갈레온 무역은 1565년부터 시작하여 1815년까지 매년2척(후기에는 1척)으로 편성되어 스페인에게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⁴⁾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중국 및 일본, 인도 등의 이웃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실어 나르는 마닐라-아카풀코무역은 식민지 중앙정부와 이권에 개입한 가톨릭교단까지도 높은 수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스페인 식민지배하의 마닐라는 중국의 남지나해 교역권의 가까운 항구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의 스페인세계와 중국세계의 금은 교환비율의 차를 배경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복건상인이 주재하는 범선교역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각국과 필리핀 그리고 스페인령 멕시코를 잇는 삼각무역의 형태를 띠는데 초기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주를 이루어 비단, 향신료 등의 물품을 마닐라로 싣고 오면 이를 스페인상인들이 다시 갈레온 무역선으로 옮겨 멕시코 해안의 아카풀코로 싣고 온다. 돌아올 때 그들은 멕시코, 페루에서 생산되는 은을 싣고 오게 된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운반된 비단과 향신료를 다시 스페인본국으로 이어준다.⁵⁾

이처럼 마닐라-아카풀코 갈레온무역(이하 마닐라 갈레온무역)은 250년에 걸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거친 무역이면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의 3대륙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즉,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글로벌화를 이룬 초기적 사건이며 유럽인, 아시아인, 남미인의 총체적으로 통합된 글로벌화의 초기에 해당하는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5세기의 지리상의 발견과 유럽세력의 아시아진출과 함께 16세기의 글로벌무역의 초기단계로 일컬어지고 있는 마닐라 아카풀코

3) 池端雪浦編『東南アジア史Ⅱ 島嶼(とうしょ)部』山川出版 1999, p100.

4) 伊藤 禎一, 『東南アジアの經營風土』,白桃書房,1992,p168.

5) Onofre D. Corpuz, 『An Economic History of the Philippines』,University of Philippines Press . 1997,pp39-40

갈레온 무역에 일본과 중국이 어떠한 대응으로 이어졌으며 유럽세력의 모토였던 가톨릭포교와 무역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에 중국과 일본은 유럽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의 종교적 유혹과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당시의 흐름에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의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2-1. 마닐라 갈레온무역에 관한 선행연구

필리핀은 16세기와 17세기에 돈벌이가 안되는 군도(profitless archipelago)로서 묘사되고 있을 정도로 향신료와 자원과 없는 지역이었지만⁶⁾ 마닐라 갈레온 무역으로 생기는 간접적 이익(indirect profit)은 생존전략으로서 무척 컸다고 할 수 있다.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삼각무역의 형태로 분석하면서 글로벌무역의 등장으로 간주하여 세계 시스템적 사고로 논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삼각무역의 중심 상품인 중국의 비단이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서양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본 학자는 Chuan Han-Sheng(1975) 인데 그는 중국의 명나라말과 청나라 초의 시기에 해당되는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마닐라와 아카폴코의 교역상품인 중국의 비단에 대해 논하였다.⁷⁾

또한, Debin Ma(1999) 는 세계사에서 비단교역의 흐름을 살펴보고 비단교역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 연결되었는가를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살펴보고 중국비단과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은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⁸⁾

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1995) 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이 시작된 해는 1571년이며 이로 인해 銀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세계무역의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명나라의 은 부족과 스페인 식민지의 비단수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⁹⁾

Thomas W. Barker (2004) 도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중요 요인을 마닐라에

6) Bauzon, Leslie E. "Deficit Government: Mexico and the Philippine Situado (1606-1804)". Duk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70.172

7) ChuanHan-Sheng, The Chinese Silk and Trade with Spanish-America from the Late Ming to the Mid-Ch'ing Period (San Francisco 1975)

8) Debin Ma "The Great Silk Exchange: How the world was connected and developed " in Pacific. Centuries: Pacific Rim History Since the Sixteenth Century , eds. D.O. Flynn, L. Frost, and A.J.H. Lantham. (New York: Routledge: 1999),

9) Flynn and Arturo Giráldez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6, no. 2, (1995): 201-221

서 교역되는 은(銀)과 비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중국의 명나라의 화폐정책으로 나타나는 銀부족의 사회적배경과 비단생산의 발전과정을 통해 이것이 복건상인을 통해 마닐라에서 교역되면서 삼각무역의 형태를 띠며 글로벌로 발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¹⁰⁾

서성철(2013)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세계시스템 속에서 보고 아메리카가 세계체제 속에서 편입하게 된 시기는 19세기 가 아니고 16세기라는 것을 주장하면서¹¹⁾ 그 중심역할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한 삼각무역이었다고 주장한다.

상술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중국인의 등장으로 비단이 첨가되면서 은과 비단의 교역이 되면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이 참가하는 글로벌무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마닐라 갈레온무역에 등장한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선행연구

야기누마 고이치로(柳沼孝一郎 2012)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체제를 배경으로 스페인제국의 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을 누에바 에스파냐 副王領(멕시코)에서 태평양관심으로 시작된 아시아 진출의 역사배경과 변천을 중심으로 논하였다.¹²⁾ Ng(1971)은 명나라중기에서의 비단을 가져다준 복건상인의 해상무역에 대한 정책과 자세에 대해 논하였으며¹³⁾ 한걸음 더 나아가서 Trechuelo (1966)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기에서 필리핀 국내경제에서 정착하게 된 중국인의 역할과 배경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특히 중국복건성에서 비단을 들고 온 중국인과의 역할과 마닐라에 정착하는 중국인들을 살펴보았다.¹⁴⁾

한편, 필리핀 마닐라에 정착하게 된 중국인의 배경을 수기야 나리코(菅谷成子 2000)는 16세기의 갈레온 무역기에 등장한 수많은 중국인들에 위협을 느낀 스페인 식민지정부가 가톨릭의 강제화로 脫중국화로 이어지면서 마닐라에 정착하게 되어 華人(메스티조)사회가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⁵⁾

10) Thomas W. Barker, Silver, Silk and Manila. Factors Leading to the Galleon Trade, in: I.D.E.A.S Journal, 2004

11) 서성철, 삼각무역: 아카폴코 갤리온 무역의 탄생과 몰락, 『Asian journal of latin Studies,』 vol26 no2 .2013. pp131-157.

12) 柳沼孝一郎, 스페인帝國의 太平洋霸權確立~海外領土擴張政策と東アジア進出の歴史背景~, 神田外語大學紀要第24号, 2012.

13) Ng Chin-keong, "The Fukienese Maritime Trade in the Second Half of the Ming Period - Government Policy and Elite Groups' Attitudes," Nanyang University Journal, 5, pt. 2 (1971): 81-100

14) Lourdes Diaz-Trechuelo. 1966. The Role of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Domestic Economy (1570-1770), in: Alonso Felix, Jr., ed.,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1570-1770, vol. I, Manila : 206-208.

15) 菅谷成子. . 18世紀中葉フィリピンにおける中国人移民社会のカトリック化と中国系メ스티ーソの興隆, 東洋文化研究所紀要. 2000. 139冊,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마닐라 갈레온 무역기에 일본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한 학자는 없지만 국제항구로서의 마닐라 항구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 학자는 Ubaldo Iaccarino(2008) 이다.¹⁶⁾ 그는 마닐라를 일본과 멕시코의 은이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와의 교역에 대해 아메리카, 중국, 일본 사이의 국제통로로 보았다. 또한 C.R Boxer(1967) 는 16세기-17세기를 일본의 크리스찬 世紀 로 명명하면서 포교와 무역을 모토로 大航海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무역과 기독교의 포교경쟁으로 인해 선교사추방령과 殉教등 으로 이어졌고 키리시탄 추방령으로 인해 마닐라에 일본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¹⁷⁾ João Paulo Costa Oliveira (2003)는 1600년의 일본에는 이미 가톨릭신자가 30만 명이나 있었고 세키가하라의 전투 직전에는 세례를 받은 14명의 키리시탄 다이묘의 존재가 있었으며, 이들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의 행동과 이에야스의 승리후의 이들의 위치와 게이초금교령의 전후 상황에 대해 논하였다.

일본의 학자들도 나가즈미(永積洋子 1990)의 근세초기의 외교¹⁸⁾와 스즈키(鈴木かほる 2010)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스페인외교¹⁹⁾등이 16세기 17세기의 일본이 처해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체제를 은과 비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닐라 갈레온 무역체제에서의 일본인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배경과 역할에 대해 논한 과제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항해시대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시아진출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이 등장하게 된 경제적 배경에 대해 考察한다. 또한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 체제에 동참하게 된 중국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비슷한 시기의 히데요시(豊臣秀吉)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외국무역에 대한 사상과 서양의 종교에 대한 철학과 포교와 종교에 대한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3. 대항해시대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시아진출

-그리스도(가톨릭)포교와 향신료 무역을 위한 항해-

16) Ubaldo. Iaccarino 2008, 'Manila as an international entrepôt: Chinese and Japanese trade with the Spanish Philippines at the close of the 16th century', BPJS 16: 71-81.

17) C.R Boxer,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18) 永積洋子 『近世初期の外交』 創文社 1990年

19) 鈴木かほる 『徳川家康のスペイン外交』, 新人物往来社. 2010年

1487년 8월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Bartholomeu Dias)는 리스본을 출발하여 1488년 초에 희망봉을 경유하여 12월에 리스본에 도착하였다. 희망봉이 발견되면서 대서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항로가 개척되어 향료무역이 시작되었다. 약 5년 뒤에 컬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는 서쪽항로로 아시아에 도달하기 위해 산타페 협정을 맺고²⁰⁾ 산타 마리아 호등 범선 3척을 이끌고 1492년 8월3일 남스페인의 바로스 항구를 출발 10월12일에 바하마제도의 산살바도르에 도착하였다. 이른바 컬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이다.

스페인왕실이 신대륙의 해협발견에 분주하고 있을 시기에 포르투갈은 동쪽항로를 개척하여 무역권을 확대시켜 동남아시아의 향료무역으로 관심을 돌렸다. 바스코 다 가마 (Vasco da Gama)는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의 뜻을 이어 1497년 가브리엘號(Gabriel), 라파이엘號(Rafayel), 베리오號(Berio)등 4척으로 된 탐험대를 이끌고 리스본을 떠나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1498년 5월 20일 인도의 캘리컷(Calicut)에 도착하였다. “그리스도와 향신료를 위해(christos e especiarias!)” 라는 모토처럼 가톨릭의 전도와 향신료무역을 위해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다. 이로써 포르투갈이 인도무역을 독점하는 길이 열렸다.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 수세기 동안 향료 무역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15세기 말에 베네치아에 들어오던 향료가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가격은 급등하였다. 예를 들면 1497년까지 후추(胡椒)가격은 1 hw 당 42-48 다카트(ducat)였는데 1499년에는 2배가량의 80 다카트, 1500년에는 130 다카트까지 급등하였으며, 정향(丁香)과 육계(肉桂)와 육두구(肉豆蔻) 등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²¹⁾

이런 이유 때문에 포르투갈은 1505년 스리랑카(시일론)를 점령한후, 포르투갈의 인도 총독 아폰소 디 알부르케르케(Alfonso de Albuquerque, 1453-1515년)는 실론 섬과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를 점령(1511년)하고 동인도 향료 무역을 장악했다. 1512년 알부케르케는 몰루카 제도에 도착해 이곳 사람들과 직접 교역하면서 육두구와 정향 무역을 독점했고 곧 베네치아 상인들을 능가했다.²²⁾ 포르투갈은 1521년에 인도의 고아(Goa), 1557년 마카오(Macao)등의 식민지를 쟁탈하면서 향료무역에 앞장섰고, 16세기 내내 정향 무역을 지배했다.

20) 1492년 4월17일 맺은 협정으로 컬럼버스에 대해 이후에 발견된 섬들과 대륙의 총독, 부왕, 군사령관의 요직이 세습으로서 주어지며 이들의 영토와의 교역에서 얻은 금, 은, 보석, 향신료의 10%가 무세금으로 컬럼버스의 수입으로 인정받은 협정이다.

21) V. M Gordino, 1953, le reperi venetian et egyptien et la route du cap 1496-1533, in Eventail del'histoire vivante, hommage a lucien febre 2, 1953, p289 과 ヴァスコ・ダ・ガマのインド航海記, 大航海時代叢書〈第1〉航海の記録, 岩波書店, 1965, pp450-457.

22) 増田義郎, ポルトガルとアジア (1) 國際關係紀要第 8 卷第 2 号, 亞細亞大學國際關係研究所, 1999. pp35-37

포르투갈이 발행하는 무역면허증과 통행증에 해당하는 카르타즈(cartaz) 제도는 후추를 나르는 선박에게 주어졌으며 카르타즈의 수를 제한하며 무역을 독점하였다.²³⁾

1543년 프란시스코 사비에르(St. Francis Xavier)의 일본도착이래 14년이 지난 1557년에 마카오의 거주권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자 마카오를 기지로 일본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여 많은 포르투갈 상선이 일본큐슈의 항구에 입항하였다. 포르투갈은 아시아진출 초기부터 이지역의 무역을 원칙적으로 국왕의 독점적경영하에 두었지만 1550년경부터 대중국 및 대일본무역을 국왕 또는 고아총독이 임명하는 항해와 무역의 총책임자로서 전권대사 격인 카피탄 모아 (capitao mor)의 통제하에 운영하기로 하였다.²⁴⁾

포르투갈은 아시아지배의 중심지로서의 고아와 마카오, 나가사키무역은 카피탄 모아제의 관할 하에 이루어져 매년 600내지 800톤의 규모의 대형범선이 거의 1척 또는 2척의 정크를 동반해서 일본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림1참조)

카피탄 모아 제도 하에서 포르투갈의 무역선은 중국의 생사나 견직물을 일본으로 갖고 와서 그대가로 일본의 銀을 받아 금과 은의 교환비율인 金銀比價가 높은 중국에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²⁵⁾

16세기후반의 일본은 朝鮮으로부터의 銀정련기술인 회취법(灰吹法)이라 불리는 신기술도입으로 은을 생산하여 세계유수의 銀 생산국으로 등장하였고 중국의 비단과 교역된 銀은 매년2만-2만5천 Kg에 달했다고 한다.²⁶⁾ 이 액수는 점점 상승하여 17세기 초에 이르면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銀은 연간 15만kg까지 상승했다고 추정되고 있다.²⁷⁾ 17세기의 일본의 銀 생산량은 세계 銀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량의 은을 생산하여 아시아의 은의 수출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銀생산은 포르투갈을 나가사키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23) 김동엽, 15-16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과 변화: 포르투갈의 진출과 영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1권2호, 2011, pp22-23.

24) Charles Boxer, The Great Ship from Amacon. Annals of Macao and the Old Japan Trade, 1555-1640 (Lisbon:) Centro de Estudos Históricos Ultramarinos, 1959; pp8-11

25) 高橋 保, 16世紀におけるイベリア勢力のアジア進出と日本像の変容 : 黄金の国ジバングから銀の国ジャパンへ. Bulletin of the Sohei Nakayama IUJ Asia Development Research Programme 3, p.187, 1991-03

26) リンスホーテン 『東方案内記』 岩生成一・渋沢元則・中村孝志訳, 岩波書店、大航海時代叢書 8, 1968, p250.

27) 岩生成一, 朱印船貿易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58, p329

(그림1) 포르투갈의 인도항로와 마닐라-아카폴코 무역로



주: 검은선은 포르투갈의 인도항로, 흰선은 마닐라 아카폴코 항로

한편 스페인은 새로운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을 원정대 대장으로 임명하여 1519년 9월20일에 빅토리아호 등 5척의 배와 승무원 234명으로 산루카 항구를 출발하게 하였다.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에 의거²⁸⁾ 마젤란함대는 포르투갈의 동쪽항로와는 반대로 서쪽항로를 거치면서 1년 뒤인 1520년 10월21일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의 해협 소위 마젤란해협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태평양을 횡단하여 1521년 3월16일에 필리핀제도에 도착하여 4월7일 세부 섬에 도착하였으나 마젤란은 막탄 섬에서 원주민의 추장인 라푸라푸(Lapu-Lapu)와 싸우다 전사하였다. 지휘관을 잃은 함대는 5척에서 2척만 남아 동년11월에 향료제도인 티도레(Tidore)에 도착하였다. 후에는 빅토리아호 1척의 47명의 승무원은 대량의 향료를 만재하여 인도양에서 희망봉을 돌아 1522년 9월8일 세빌리아에 입항하여 세계일주가 이루어졌다.

1526년에는 스페인도 티도레섬에 요새를 축조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약 3년 뒤인 1529년 스페인왕 카를로스 5세는 사라고사(Zaragoza) 조약에 의해 몰루카제도의 영유권을 포르투갈에게 양도한다.

스페인은 신대륙 발견후 정복과 그리스도교 포교를 축으로 한 정복,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여 아메리카대륙에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멕시코)와 페루 부왕령(副王領)등의 확고한 식민지를 구축하고 그 여세를 더욱 서쪽으로

28) 1494년 6월 7일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이에 연결된 조약으로, 「신대륙」에 있어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승인에 의해서 유럽 이외의 신영토의 분할 방식을 결정했다. 이 조약에 대해 서경 46도 37부)의 동쪽의 신영토가 포르투갈에, 서쪽이 스페인에 속하는 것이 정해졌다.

이동시켜 레가스피 원정대를 파견하여 동아시아진출을 꾀하였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의 인도항로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인 아시아의 항로개척이었다. 1565년 10월 3일 선교사인 우르다네타 (Andres de Urdaneta)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과 동양을 잇는 귀항로인 토나비아(tornaviaje)가 개척되어 레가스피의 필리핀건설에 이르게 되었다.²⁹⁾ (그림1참조)

즉, 향신료와 귀금속을 발견하려고 필리핀 제도를 탐험했지만 이 섬에는 어느 곳에도 귀금속하고 향신료는 없었다. 그래서 생존전략으로서 등장한 것이 마닐라-아카풀코 갈레온 무역이었다.

4. 글로벌화의 시초로서의 마닐라 갈레온무역의 등장

마닐라 아카풀코 갈레온 무역(Manila -Acapulco trade Galleon)이라 불리고 있는 필리핀과 누에바 에스파냐(멕시코)의 아카풀코 사이에 이뤄진 갈레온 무역은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당시의 국제무역루트였다. 1565년부터 시작하여 1815년까지 250년에 걸쳐, 중국 및 일본 등의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은과 비단을 실어 나르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스페인본국 및 식민지정부와 이권에 개입한 가톨릭교단에 높은 수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왔다.³⁰⁾

1565년에 최초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개척선으로 불리는 산 페드로 (San Pedro:)號가 계피(cinnamon) 등의 향신료를 갖고 멕시코의 누에바 에스파냐(뉴스페인: 멕시코)로 향했다.

누에바 에스파냐의 레가스피(Miguel López de Legaspi)가 1565년 필리핀을 정복한 후 세부에 주 근거지를 마련했다가 1571년 마닐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전략적 자원의 의도적 행위로서, 다른 아닌 중국과의 무역을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³¹⁾

마닐라 아카풀코 무역에 획기적인 사건은 1571년에 중국의 비단을 멕시코의 아카풀코로 가져간 것인데 銀의 생산에 의해 경제력이 향상되었던 누에바 에스파냐 및 페루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 마닐라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의 명왕조가 통화로서 필요로 했던 은을 가져오면서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삼각무역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29) 柳沼孝一郎,스페인帝國の太平洋覇權確立~海外領土擴張政策と東アジア進出の歴史背景~, 神田外語大學紀要第24号,2012.

30) 伊藤禎一. 東南アジアの經營風土,1999;p167-169

31) Thomas Barker,Silver, Silk and Manila. Factors Leading to the Galleon Trade,in:I.D.E.A.S. 2004.Journal,=http://ideas.union.edu/articles/files/19_Barker_Silk_Silver_Manila.pdf

따라서 이러한 삼각무역의 형태에 대해 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 (2006) 는 1571년에 스페인이 몰자집산지로서 마닐라를 건설하기 전 아메리카와 아시아간의 교역루트는 없었다고 하면서 지구상에서의 글로벌화는 1571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32) 글로벌화의 시초를 1571년에 주장한 것 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시초를 1565년 보다 비단과 은(銀)의 교역이 시작된 1571년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 한다.

은이 세계무역의 자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중국의 중심적 역할을 아담스미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33)

신대륙의 은이 중심상품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것에 의해 구세계의 양단인 유럽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져 세계에서 2개의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이렇게 해서 두꺼운 파이프로 서로 확실하게 연결되고 있다.

상술한바와 같이 신대륙 아메리카의 은이 필리핀에 유입되면서 마닐라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그리고 본국스페인을 잇는 중개지 역할을 하게 된다. 1573년에 2척의 갈레온 선이 아카폴코에 중국비단 712상자, 도자기 22,300개를 운반하였다. 중국 명나라가 통화로서 필요로 했던 은을 마닐라의 중국인들이 갖고 귀향하면서 갈레온 무역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1574년에는 6척, 1575년에는 12척의 중국의 정크선이 마닐라에 상품을 날랐다.34)

마닐라 갈레온의 1591-1780년의 사이의 수입은 필리핀 1년 경상비의 10-15%에 해당할 정도의 막대한 경비를 조달했는데,35) 그 중심은 사실 중국의 신대륙에 의한 은의 공급과 유럽의 중국의 비단 수요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비단 은 세계에서 애호되는 상품이지만 오직 중국에서만 대량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유럽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은(銀) 뿐이었다. 중국이 은을 수입하게 된 배경에는 14세기 말 명의 지폐(바오차오:寶鈔)를 분위화폐로서 표준 교환수단의 삼았던 명나라 화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은에 대한 수요는 명나라가 1570년 '단일화폐'(single-whip)인 일조편법(一條編法)개혁을 추구하면서, 각종의 세금을 통일된 세금으로서 은(銀)으

32) 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 2006. "Globalization Began in 1571", in Barry K. Gills and William R. Tompson, eds., *Globalization and Global History*, London:19-33

33) Adam Smith.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2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207

34) 山田義裕. 2011. 마닐라·갈레온. *日本海事史学会 2011 年 9 月例会*.pp11-12

35) Carla Rahn Phillips. 1990. "The Growth and Composition of Trade in the Iberian Empires, 1450-1750," in James Tracy, e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Long-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p98

로만 지불하는 세제가 확립되면서 나타났다. 중국이 당시 세계인구의 1/4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주위의 국가들이 조공관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일조편법제도는 아시아지역은 물론, 인도, 이슬람, 그리고 유럽까지 은 결제제도가 이어졌다고 하겠다.³⁶⁾ 중국경제는 무척 거대하기 때문에 중국이 은을 결제수단으로 함으로서 중국에서의 은의 시장가격은 아메리카, 일본, 유럽 등 보다 높게 평가되는 원인이 되었다.

16세기 초 중국에서의 금과은의 교환비율인 금은비가(金銀比價)는 1:6으로서, 인도(1:8), 페르시아(1:10), 유럽(1:12)등과 비교해보아도 중국의 은의 가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금의 상대가격이 낮고 은의 상대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높았던 중국으로 은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³⁷⁾

Flynn and Giraldez(1995)³⁸⁾ 은 복건-마닐라-아카폴코의 비단과 은의 삼각무역은 태평양무역의 탄생인 동시에 글로벌무역의 등장이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면 1565년-1850년 동안에 4억 폐소가 아카폴코에서 마닐라로 이동되었는데 그중 75%가 비단과 은의 교역대금으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³⁹⁾

17세기 포르투갈의 역사학자인 Bocarro는 17세기의 중국의 비단생산량은 2,500톤이 생산되었는데 그중 1/3 인 800톤가량이 수출되었다고 한다.⁴⁰⁾

이처럼 거대시장인 중국은 비단을 독점생산 할 수 있었고 은이 필요한 국가였다는 점과, 스페인 제국은 은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은과 비단을 매개로 한 스페인과 아시아간의 교역 패턴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

갈레온 무역기의 필리핀의 스페인사람들의 무역네트워크의 직접적인 상

36) Hamashita Takeshi. 1994. "The Tribute Trade System and Modern Asia". In Japanese Indu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ed. by A. J. H. Latham. London: Routledge: 1994.p97.

37) Richard von Glahn, Fountain of Fortu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96,p127.

38) Flynn, D. O., & Giraldez, A. (1995).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Journal of World History*, 6(2), 201-219.

39) Debin Ma The Great Silk Exchange: How the World was Connected and Developed. In *Pacific Centuries: Pacific Rim History Since the Sixteenth Century* eds. D.O. Flynn, L. Frost, and A.J.H. Lantham, 38-65. New York:Routledge.

40) George Bryan Souza, The Survival of Empire: Portuguese Trade and Society in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1630-17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p46.

대는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상인 이었다. 그 이유는 레코필라시온(Recopilacion)에 명시된 원주민의 주거제한규정(교구 수사신부의 허가 없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푸에블로를 떠날 수 없다)때문 이었다.

중국인들이 필리핀에 언제 정착했는지 송나라 때부터 등 여러 설이 있으나 서양의 기록에서는 스페인의 필리핀 정복전인 1548년8월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⁴¹⁾

사랑가니 의 원주민은 龍延香 安息香의 향료와 약품과 油香 등을 항상 바르거나 지참하고 있지만 이들 향기는 조악한 것으로 민다나오나 필리핀 제도에의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다.

스페인식민지전의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전에 이미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필리핀내의 중국인의 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레가스피에 의한 스페인통치가 시작한 1571년에 150인(이해에만 마닐라) 1588년에 1만 명의 통계가 있다.⁴²⁾ 특히 1571년 이후에 150인정도의 중국인이 17년 만에 1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마닐라 갈레온 무역 과 중국 상인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과연 이들을 이렇게 끄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마닐라에 중국인이 급격히 증가 한 것은 새삼 말할 필요 도 없이 銀 때문이다. 즉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성립에 의해 멕시코의 은과 중국의 복건상인의 비단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복건의 정크무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임시 체류하기 때문이었다.⁴³⁾

복건연안지방의 중국인들은 레가스피가 마닐라로 수도를 이전한 이후, 중요한 교역상대가 필리핀의 원주민인 인디오에서 스페인인으로 전환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는 한편, 마닐라 갈레온 무역이 개시되면서 비단, 도자기 등 멕시코의 아카폴코에 중계수출 될 상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시기의 중국인들의 마닐라 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1580년대에 매년 30-40척의 범선(정크)이 복건, 광둥에서 마닐라로 도항하는데 이들 중국범선은 계절풍 에 의지하여 대개 3월초에 출발하여 약 15-20일간에 마닐라에 도착하여 남서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는 5월경에 귀환하였다.⁴⁴⁾

41) AGI, Patronato 23-10, f.2r. Valera, Consuelo ed., El viaje de don Ruy López de Villalobos a las islas del Poniente 1542-1548 (Milano: Cisalpino-Goliardica, 1983) p.120. 그리고 伊川 健二, 聖ペドロ・パウティスタと織豊期の日西關係, 待兼山論叢. 文化動態論篇. 44, 2010-12. p27에서 재인용.

42) 周南京. 1993. 「中國和菲律賓的歷史關係」 吳文煥編 『菲律賓與華人』,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p86

43) 菅谷成子 「「トンドの謀議」をめぐる一考察—스페인領フィリピン成立の斷章」 『愛媛大学法文学部論集人文學科編 Vol.32』 2012, p439

중국인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스페인마닐라정부의 유지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동시에 위협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마닐라 정부는 성벽 도시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의 외측에 중국인들의 거주지역 파리안(Parian)을 건설하여 중국인의 이동금지를 위한 관리와 징세의 목표로 한 정책을 취했다. 1594년에는 마닐라의 비논도(Binondo)지구에 중국인 가톨릭개종자를 위해 새로운 중국인거주지역이 만들어 졌다.⁴⁵⁾ 그렇지만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개종사업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가톨릭신앙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이교도집단으로서의 새로운 거주 지역으로만 등장 하였을 뿐이다.

17세기의 교역시즌에는 중국인들이 스페인인 인구를 훨씬 능가하여 당시의 동남아교역권은 물론, 최대 규모의 2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정착하였기 때문에 마닐라는 당시의 세계최대의 차이나타운이 되었다.

스페인 통치자들은 중국인 상인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과하거나 이교도로서의 압박과 착취가 계속되면서 중국인이민자들은 10수년간격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대응하였다.

예를 들면 1603년에는 마닐라봉기에는 마닐라 에 거주하는 중국계이민의 2/3에 해당되는 25,000인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후 1640년, 1662년, 1687년으로 스페인 통치시대 만으로 4회의 중국계이민의 학살사건이 발생하였다.⁴⁶⁾

그 이유는 스페인인은 작업노동을 경멸했고 원주민은 이러한 작업노동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업종에 중국인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⁴⁷⁾ 이러한 상황을 Antonio Morga 는 그의 저서(Firipin shotōshi)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인에 대해 논하고 있다. ⁴⁸⁾

정말로 중국인 없이는 마닐라는 존재 할 수 없다. 이들은 모든 무역과 사업에서 썩 임금에도 매우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논하자면 중국계 이민노동자는 어부, 정원사, 사냥꾼, 織工,

44) 松竹秀雄. 1989. 「タイオワン (台湾) をめぐる17世紀の海外貿易」 『東南アジア研究年報 第31卷』 : 1989.32頁

45) De Viana, Three Centuries of Binondo Architecture, 1594-1898: A Socio-Historical Perspective. España, Manila: University of Santo Tomas Press. 2001.pp10-18

46) 小林幹夫. 『新東南アジア華人事情』 日中出版』 1992.pp117-118.

47) Edgar Wickberg, "The Chinese Mestizo in Philippine Histo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rvol 5.no1:66,1964.p8

48) Antonio Morga, Firipin shotōshi 神吉敬三 訳, フィリピン諸島誌 ,岩波書店, 1973 ,p349.

벽돌공, 석회제조자, 목수, 정육점, 양초제조자, 페인트공, 은세공업자, 제과점, 약제사, 포목점, 조각가, 식당 등 마닐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직업을 차지하고 있었다.⁴⁹⁾

이러한 상황은 스페인정부와 인디오사이에 반중국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중국인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고 중국인의 대응으로 대량학살사건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⁵⁰⁾ 1603년 중국인의 학살 사건 후에는 1년간 마닐라는 경제적 불황으로 이어져 갈레온 무역이 마비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인 학살은 횡수로 4번 자행되었으나 거의 전부가 스페인 통치기의 전반에 집중하고 있다. 1637년에는 중국인의 인구가 약 2만명 정도에 달한다고 했으나⁵¹⁾ 1650년의 마닐라인구는 15,000명의 중국인과 7,350명의 스페인인, 현지인디오가 20,124명으로 중국인인구가 스페인인보다 2배정도 많았다⁵²⁾. 1637년보다 5,000명이 감소한 것은 1640년의 중국인 학살사건에 의한 것으로 기인한다. 중국인 학살사건의 이유는 스페인마닐라 정부의 중국인에 의존한 식민지경영 즉, 마닐라 갈레온 무역체제에서 탈퇴함으로써 銀의 중국에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본방침이 채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755년 아란디아 (Pedro Manuel de Arandia) 총독(재임1754-1759)이 실시한 非가톨릭교도 중국인의 추방은 중국인 이민사회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다주었다⁵³⁾

1755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515명은 세례를 받았고 1,108명은 세례를 받기 위한 가톨릭교리 공부를 위해 잔류했고 2,070명은 마닐라에서 추방당했다.⁵⁴⁾ 그리고, 매년 3,000-4,000명 정도의 非가톨릭 중국인들이 파리안(parian)을 떠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방정책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1762-63년의 영국의 마닐라 점령시기에 협조한 중국인들을 가톨릭교도와 非가톨릭 관계없이 1764년에는 6,000명을 추방하였다.⁵⁵⁾

49) Robert R. Reed. 1967. "Hispanic Urbanism in the Philippines: A Study of the Impact of Church and State, University of Manila: 137

50) Guillermo Ruiz-Stovel. 2009. Chinese Merchants, Silver, Galleons, and Ethnic Violence in Spanish Manila, 1603-1686. *Análisis* 47, vol. 12, pp49-50

51) (池端雪浦·生田滋, 世界 現代史 - 東南アジア現代史 II, 山川出版社:33

52) John Leddy Phelan. *The Hispanization of the Philippines: Spanish Aims and Filipino Responses, 1565- 170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1959,p178.

53) 菅谷成子. 2000. 18世紀中葉フィリピンにおける中国人移民社会のカトリック化と中国系メスティーゾの興隆, *東洋文化研究所紀要*. 2000. 139冊,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p439

54) John Foreman, *The Philippine Islands:Em Esber Blog2: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Spanish era,2010.* p4

55) Salvador P. Escoto. *A Supplement to the Chinese Expulsion from the Philippines,*

스페인정부는, 식민지경제를 위하여 16세기이후의 중국과의 범선무역을 계속 유지시켰으나 1755년 6월30일 이후에는 무역으로 왕래하는 중국인을 이교도(infieles)와 가톨릭교도(cristianos)와 구분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에 중국인 이민사회는 추방보다는 식민지 지배의 정통성 원리였던 서양의 종교인 가톨릭을 수용하면서 교회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세례 혼인을 통해 스페인국왕의 신하로서 식민지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⁵⁶⁾ 필리핀에서는 중국에서 온 여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과 현지여자와의 결혼을 쌍방이 가톨릭신도이면 국적을 묻지 않고 장려 하였다.⁵⁷⁾ 이후에도 아란디아 총독의 非가톨릭 중국인의 추방정책은 그 후의 총독들에게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으므로 중국인들은 가톨릭신자가 되면서 脫중국화하여 특별한 필리핀人으로서 생활하며 중국계 메스티조(Mestizo de Sanglay)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18세기 중엽에는 중국계 메스티조 들은 자신을 스페인人과 동일시하며 순수중국인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스페인 식민정권 편에서 행동하였다.

6. 마닐라갈레온 무역과 일본인

본장에서는 16세기말의 일본의 지배자인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17세기 초의 지배자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일본과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령 필리핀의 포교와 교역을 중심으로 한 교섭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6-1.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서양접촉과 정책

일본과 서양과의 최초의 만남은 1543년(天文12년) 8월 포르투갈船이 가고시마(鹿兒島)의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표류하여 무역을 요구하며 조총을 전해준 것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1546년에도 포르투갈 무역선 3척이 사츠마(薩摩: 가고시마현)에 碇泊한 기록⁵⁸⁾을 보면 이시기에 이미 서양인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일본인에게 서양의 접촉을 느끼게 해준 것은 가톨릭과의 만남이었다고 하겠다.

1549년 8월 15일 프란시스코 사비에르(St. Francis Xavier)는 토레스(Cosme

1764-1779. Philippine Studies vol. 48, no. 2 (2000): pp214-216

56) Salvador P Escoto, 2000. 220-222

57) 이덕훈,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제4판, 도서출판 글누리, 2011, p157,

58) 岡本 良知 『長崎開港以前歐舶來往考』日東書院, 1932年, 13頁, 松竹 秀雄, 朱印船時代とそれ以後の長崎の海外貿易 (1). 經營と經濟, 長崎大學經濟學會 1989年 9月. p165

de Torres) 신부와 페르난데스(Juan Fernández) 신부 등 3명의 신부와, 야지로(安次郎)를 포함한 7명의 일행(인도인, 중국인 봉사자등)들과 일본 최남단 사츠마 에서 표류하며 가톨릭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사츠마의 영주 시마즈 다카히사(島津 貴久)는 사비에르 일행을 환대하여 가톨릭포교를 허가받았다.

1562년 요코세우라(横瀬浦)의 개항과 1563년 오무라의 영주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가톨릭)가 큐슈의 서해지방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다. 1567년, 루이스 알메이다(Luís de Almeida) 가 나가사키(長崎)에 들어오고 1570년 오무라 스미타다와 토레스신부와의 계약에 의해 새로운 무역항이 개항되어 1571년 봄에는 나가사키항구가 탄생하였다.

C.R Boxer는 그의 저서 일본의 크리스찬 세기(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에서 사비에르가 일본의 薩摩(가고시마)에 도착한 1549년을 크리스찬 세기의 시초로 보고 있다. 59) 따라서, 처음으로 일본에 서양문물을 전래한 것은 예수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선교사는 상인과 수도원의 종교적 경제적 신념의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에 선교사이면서 가톨릭과 포교와 무역을 겸하였다. 이를 하나님과 맘몬⁶⁰⁾(God and Mammon)이 협력한 상태로 지적하거나⁶¹⁾ 무역과 그리스도교의 포교의 일체화 즉 상교일치(商教一致)⁶²⁾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시기의 일본의 최대실력자는 노부나가(織田信長)인데 그는 서양문화에 호기심이 강하여, 비로드(벨벳:Velvet) 망토(manteau)를 거치고 서양식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였으며 예수회가 헌상 한 地球儀 시계, 지도 등을 잘 이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노부나가는 당시 아직 총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무렵에 서양의 화승총의 성능을 중시해, 전국 최강의 조총부대를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1575년 나가시노 전투(長篠の戦い)에서는 3,000정의 조총을 3열로 나누어(3단 사격법) 마방진에 분산배치하고 번갈아 발사하여 당시 일본최강의 다케다 가츠요리(武田勝頼)의 기마대 15,000명을 궤멸시켰다. 63)

1582년 6월에 아케치 미즈히데(明智光秀) 의 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으로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사망하면서 권력은 히데요시에게 집중되어 히데요시의

59) C.R Boxer는 그의 저서 일본의 크리스찬 세기(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에서 사비에르가 이룬에 도착한시기를 그 시초로 보고 있다. Charles Ralph Boxer.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60) 맘몬은 부(富),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 하느님과 대적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르는 말.

61) C. R. Boxer , A Note on the Triangular Trade between Macao, Manila, and Nagasaki, 1580 - 1640 Terrae Incognitae Vol 17, No 1. p51.

62) 平川 新, スペインの對日戰略と家康・政宗の外交. 『國史談話會雜誌』東北大學文學部日本研究室, (50), (2010), 193.

63) 이덕훈, 일본의 경제발전과 무사도, 비엔엠북스, 2009, pp114-117를 참고할 것.

천하가 된다. 히데요시의 집권기인 1584년 6월 포르투갈의 정크선이 마닐라에서 마카오로 귀환도중 히라도(平戶)에 정박하게 된다. 이 배에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신부가 승선하고 있었는데 히라도의 번주인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鎮信)는 이들과 접촉 후 가톨릭포교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필리핀 총독과의 수교를 요구한다.⁶⁴⁾

히데요시도 노부나가의 정책을 답습하여 서양과의 무역을 원하고 있었지만, 1587년 6월 히데요시는 큐슈의 하카다(博多)를 평정하면서 이 지역에 키리시탄(切支丹, 가톨릭신자 : Cristão) 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고 그의 태도는 일변하였다. 6월19일 갑자기 <키리시탄 금교령> 5개 조항을 발령했다.⁶⁵⁾ 일반적으로 파테렌(선교사:伴天連) ⁶⁶⁾追放令 이라고도 한다⁶⁷⁾. 그 요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일본은 신국(神國)으로 크리스찬 국의 사법(邪法)은 용서할 수 없다.
- (2) 신사, 절의 파괴는 전대미문의 일이고 각 영주는 천하의 법도를 준수해야 한다.
- (3) 선교사는 불법(佛法)의 파괴자이므로 20일 이내에 일본으로부터 퇴거해야 한다.
- (4) 상선(商船)은 도항해서 매매를 해도 좋다.
- (5) 불법(佛法)을 방해하지 않는 자는 도래(渡來)해도 좋다.

1587년 7월 멕시코의 아카폴코 로 태평양을 향해하던 마닐라 갈레온 무역선이 구마모도의 天草(아마쿠사)에 표류하였고 그 이후 에는 기상이 좋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일본에 정박하게 된다. 이것이 마닐라 갈레온과는 최초의 만남이며 글로벌 무역으로서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스페인령 필리핀에 일본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587년의 파테렌 추방령으로 일본예수회(イエズス會 :the Society of Jesus)에서 파견된 키리시탄(가톨릭신자, 切支丹, Cristão) 11인이 마닐라로 추방당해 온 것이 기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후 일본인은 무역으로 도 왔지만 切支丹(키리시탄) 탄압을 피하기 위해

64) 『長崎縣史』 藩政編

65) 히데요시가 키리시탄 금교령(파테렌추방령)을 발령한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외교권, 무역권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국가로서의 통제를 도모하기 위해」 「큐슈에서 예수회 신부들이 일본인의 노예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키리시탄에 의한 신사 불상예의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66) 포르투갈 語로 padre를 말하는데 사제, 신부를 의미하고 사제직에 있는 성직자를 지칭한다.

67) 神田千里, 伴天連追放令に關する一考察 : ルイス・フロイス文書を中心に. 東洋大學文學部紀要. 2011, pp65-110.

온 것이 주를 이루고 점점 그 수가 증가하였다. 1593년에는 300명인데 10년이 지난 1603년에는 1,5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⁶⁸⁾ 이들은 현재 마닐라시청사의 디라오(Dilao: 현 Paco)지구와 애덤슨 대학이 있는 산미겔 (san Miguel)지구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일본타운(日本町)으로 불렸다.⁶⁹⁾ 이런 상황을 보면 16세기 말의 마닐라는 이미 스페인인과 중국인, 일본인과 원주민이 모여 사는 다문화 국제도시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일본과 스페인령 마닐라와의 무역도 증가하여 일본에서는 밀가루, 소금에 절인생선, 日本刀, 丁銀 그리고 수공예품, 병풍 등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는 비단, 후추, 계피, 꿀, 거울, 흑설탕, 향아리 등을 갖고 왔다.⁷⁰⁾

스페인 마닐라 정부는 초기에는 종교(가톨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역에만 관심 있는 중국인보다는 가톨릭신자이면서 박해를 피해온 일본인에게 같은 가톨릭신자로서 많은 혜택을 베풀었다.

1591년 9월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나가사키(長崎)에서 무역업을 경영하는 하라다 키우에몬(原田喜右衛門)의 진언, 즉 필리핀을 쉽게 복종시킬 수 있다는 말을 받아들여 키우에몬의 부하로 마닐라에 거주하는 가스팔(gaspar) 하라다로 불리는 하라다 마고시치로(原田孫七郎)를 파견하였다. 히데요시는 서양종교인 가톨릭이 전파되는 것 보다는 서양과의 무역 만 을 희망하여 필리핀과의 교역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실패 하였다.

히데요시는 다음해에 마닐라 총독에게 보내는 서신사절인 코보(Juan Cobo) 선교사를 파견했지만 귀항시 조난당하여 결국, 1592년 10월에 히데요시는 필리핀총독에게 빨리 입공(入貢)하라는 취지를 키우에몬(原田喜右衛門)을 사절로 파견하여 그 다음해 인 1593년 4월에 마닐라에 도착했다.⁷¹⁾

그러나, 필리핀 교역의 조기실현을 꾀했던 原田喜右衛門은 선교사의 일본파견이 히데요시의 소망이고 의향이라고 거짓 언급하여 이에 고무된 다스마리냐스 총독은 페드로 바우티스타 (Pedro De Bautista)를 사절을 보내고 다음해 인 1594년에는 헤로니모 · 헤스스(Jerónimo de Jesús)의 가톨릭 전도단 을 파견하여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⁷²⁾

이 시기에 노예 등으로 이주한 마닐라거주 중국인 약 2,000여명이 처우에 불

68) C.R Boxer,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1967, p302.

69) 岩生成一, 朱印船と日本町, 1966, pp20-30

70) Birgit Magdalena Tremml, Illustrating Daily Routine in Multicultural Manila: A Clash of pre Modern States in Early Modern. Manila? @ PACLAS, Manila, 2008, Dec

71) Paulo Jorge de Sousa Pinto, Enemy At The Gates. Macao, Manila And The "PINHAL EPISODE". (End Of The 16TH Century). BPIS, 2008. 16, p25

72) 柳沼孝一郎, スペイン帝国の環太平洋関係史 : フィリピン諸島. における植民統治施政の変遷 神田外語大学紀要. 25卷. 2013, p295

만을 갖고 폭동을 일으켰다. 스페인정부는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마닐라 거주 의 일본의 무장 상인 에게 구원요청을 하여 약 500여명이 용병으로서 진압작 전에 참가하였다.

1594년에는 헤스스(Jerónimo de Jesús)등의 전도단의 가톨릭포교활동은 히 데요시의 금교령을 돌아보지 않는 무리한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히데요시는 마 닐라 총독 및 스페인선교사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1596년 8월28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멕시코의 아카풀코 (Acapulco)로 귀향중인 갈레온 무역선인 산·펠리페(San Felipe)호가 토사(土 佐)의 우라토(浦戸)에 표착하여 배짐 과 승무원전원의 소지금이 몰수되는 이 른바 「산·펠리페號 포탈사건(San Felipe Incident)」이 일어났다.⁷³⁾ 당시 의 16세기의 일본에서는 표류한 배의 적하된 물건은 그 토지영주의 것이라는 관습법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인 초소가베(長宗我部)에게 몰수 되었다.

산·펠리페호의 적하품목을 보면, 최상 공단(5실단) 5만근, 당목면 26만근, 金欄緞子 5만근, 생사 16만근, 印子金(금궤) 1,500, 사향사슴 10 마리, 원숭이 15 마리, 앵무새 2마리, 적하총액 130만 페소였다.⁷⁴⁾

산·펠리페호의 선장인 란데초(Matias de Randecho)는 이러한 야만적 폭거 를 교토의 프란치스코 수사회(the Franciscan Order)를 통해 히데요시 에게 청 원하였다. 그러나 란데초 선장은 일본인 관리에게 스페인제국의 강함을 말한다 는 것이 “스페인인 우선 선교사를 파견하여 가톨릭을 전도한 뒤에 군대를 보 내 정복하며 일본도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 이라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보고 를 들은 히데요시는 격노하여 가톨릭에 대한 제재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⁷⁵⁾ 4달 뒤인 1596년 12월에는 앞의 1587년에 내린 伴天連(선교사)추방령에도 계 속 교토 에 잠복하고 있었던 6명의 프란치스코 선교사와 18인의 일본인 수도 사 등 26명을 잡아 처형하는 소위 26聖人殉敎사건이 일어난다.

6-2. 이에야스와 마닐라 갈레온무역

1598년 9월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1600년 9월15일 세키가하라전투(關ヶ原の 戦い)의 승리에 의해 일본의 천하는 이에야스(德川家康)가 계승했다. 이에야스 는 평소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프란치스코회 수사회 신부인 헤로니모· 데·헤스스(Jerónimo de Jesús) 와 마닐라 갈레온 무역에 대해 회담했다. 이에야스는 마닐라와의 우호와 통상 관계의 수립을 원해, 마닐라의 갈레온 무

73) Thomas W Barker, Pulling the Spanish out of the 'Christian Century': Re-evaluating Spanish - Japanese relations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ras dition11.November 2009.,p7

74) 岩生成一監修, 箭内健次·沼田次郎編 『海外交渉史の視点』日本書籍, 昭和51年, pp89-90

75) 松田毅一 『秀吉の南蛮外交』新人物往來社, 昭和47年, 227-8頁

역선의 일본의 우라가(浦賀) 기항을 갈망했다.

한편, 일본의 무역상선도 마닐라와 누에바·에스파냐(멕시코)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한 부분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造船기술자, 항해사, 또 광산 개발을 위한 기술자의 일본에의 파견을 요청했다.⁷⁶⁾ 헤스스는 마닐라 총독인·프란시스코·테료 구즈만 (Francisco Tello de Guzman) 앞으로 보내 서간으로 이에야스의 요청을 보고했다.

1600년(慶長 5년) 3월 16일 네델란드의 로텔담을 2년 만에 서쪽 回航路로 출항 마젤란 해협 통과 후의 태평양에서, 악천후 등에 의해 표류한 네델란드 동인도회사의 함대 5척(승무원은 110명)중 살아남은 한 척 리프데(Liefde)호(생존자 24명)가 豊後(오오이타현의 일부지역)에 표착했다. 분고(豊後)의 우스키시(臼杵)에 표류한 리프데호는 자력으로 상륙이 불가능했기에 우스키시 성주 오오타 카즈요시(太田一吉)가 제공한 소형 배를 타고 육지에 상륙한다. 오오타의 보고를 받은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 테라자와 히로타카(寺沢広高)는 아담스(William Adams) 일행을 구속하고 리프데호에 선적되어 있던 각종 무기와 탄약 화물을 압수하였다.⁷⁷⁾

이때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은 이들이 해적이니 처형하라고 부추겼으나 서양과의 무역을 중시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지시에 따라 중태에 빠진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오사카로 이송되었다. 1600년 5월 12일 이들을 접견한 이에야스는 장로교와 영국 성공회를 믿는 네델란드, 영국과 로마 가톨릭 국가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과의 종교 대립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아담스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다.⁷⁸⁾ 몇번의 접견 후 이에야스는 이들을 자기 영지가 있는 에도 로 초청한다. 그리고 항해장인 영국인 윌리엄·아담스(William Adams)는 미우라 안진(三浦按針)으로 개명을 하며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이 되었다.

1602년 필리핀의 카비테港을 출발한 마닐라 갈레온 무역선인 에스피레토 산토(Espírito Santo)호 가 토사에 표류하였을 때에도 이에야스는 스페인선원들을 보호하여 주인장(朱印狀)⁷⁹⁾을 발송하여 마닐라에 귀환시켰다. 당시에 이에야스가 주인장을 교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⁰⁾

외국인상인에 대해 일본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

1. 외국선이 폭풍으로 일본의 어느 지역이나 또는 항구에 입항할 경우 어떠한

76) 로렌조·벨레스/著, 野間一正/譯 『ペアト・ルイス・ソテロ伝』 東海大學出版會, 1968年, p29

77) P·G·로저즈, 幸田礼雅譯 『日本に來た最初のイギリス人 ウィリアム・アダムズ=三浦按針』 新評論, 1993年을 참고할 것

78) ジャイルズ・ミルトン, 築地誠子譯 『さむらいウィリアム三浦按針の生きた時代』 原書房, 2005年.

79) 將軍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80) 로렌조·벨레스/著, 野間一正/譯, 東海大學出版會, 1968, pp 258-259

맺짐도 몰수하지 않는 것을 명한다.

2. 배의 운송화물의 매매에 대해 어떠한 강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금지한다. 승선한 상인에 의해 정박항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거래희망지에 옮겨 자유롭게 매매할 것을 인정한다.
3. 외국인은 일본 어디에도 거주할 것을 인정한다. 단, 외국의 법을 갖고 오는 것은 엄하게 금지한다.

이 朱印狀은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히데요시 와는 전혀 다른 우호적 태도와 통상에 대한 자유분방한 태도는 종교(가톨릭)포교만 하지 않으면 스페인과 우호적 통상관계를 갖고 싶다는 적극적 의향의 표시라고 사료된다.

1605년 로드리고·비베로 (Rodrigo de Vivero)총독 대리는 이에야스의 고문 역으로 마닐라에 체재하고 있던 아담스 를 초빙하여 이에야스와 히데타다 앞으로 서간을 보내, 우호 관계의 계속을 위해 일본무역선의 마닐라 입항을 감사한다는 뜻을 나타냈다.⁸¹⁾ 그리고 앞으로 기상악화에 의해서 표류될 마닐라 갈레온 무역선의 경우 도쿠가와와 지배하의 일본에의 기항이 인정되어야 할 것과 일본인의 가톨릭화를 위해, 가톨릭 포교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선교사에게 처우개선 등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⁸²⁾

이처럼 이에야스와 마닐라 정부 간의 교역이 진전되려고 하는 중인 1606년에 마닐라 거주 일본상인과 용병을 중심으로 약 1,500명이 일본인차별을 문제로 필리핀식민지정부에 대해 무력 봉기 했지만, 일본에서 추방된 키리시탄이 많았던 관계로 선교사들에 회유에 의해 무사히 처리되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폭동은 1607년과 1608년의 2년간 발생했지만, 무력 진압된 후, 일본인은 위험한 집단으로 비쳐져 중국인과 같이 마닐라시외에 추방되었다.⁸³⁾ 비베로 총독 대리는 일본으로부터의 내항선을 제한해 주었으면 하는 취지를 이에야스에 요청했다. 동시에 폭동에 과격했던 일본인을 귀국시켰다.⁸⁴⁾

1608년 마닐라에 후안·실바(Juan de Silva) 신임총독이 부임하여, 마닐라의 일본인의 폭동행위에 대한 불쾌함을 이에야스 에 서신으로 보내, 이에야스는 답신으로 불온 분자의 일본인의 처벌을 약속했다. 또한, 실바 신임총독은 일본에 있어서의 선교사의 취급과, 일본에의 갈레온 무역선의 기항수락에 감사의

81) Thomas W Barker, 2009, p9

82) 柳沼孝一郎, 로드리고·데·비베로의对幕府 『協定案』—日西交渉史研究の視点から— (『神田外語大學紀要』第5号, 1993年, pp43-71

83) 柳沼孝一郎, 스페인帝國의環太平洋關係史~フィリピン諸島における植民統治施政の変遷~神田外語大學紀要第25号, 2013, p300

84) C.R Boxer, 1967, p260

뜻을 나타냈다.

이처럼 스페인령마닐라와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가톨릭포교도 암암리에 전개되고 있을 시기에 생각지도 않던 무역사건으로 인하여 키리시탄은 큰 치명상을 치르게 된다. 1608년 11월, 포르투갈령의 마카오에 기항한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의 무역선의 선원이, 술집에서 포르투갈선인 데우스(Madre de Deus) 호의 선원과 사소한 일로부터 언쟁으로 이어져, 난투가 되고, 하루노부(晴信)측의 선원 약 60여명이 살해되어 적하물건까지 약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위 데우스號 사건이다.⁸⁵⁾

이 사건에 하루노부는 격노하여, 즉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나가사키에 기항해 오는 데우스호 예의 보복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야스는 이것을 방치해 두면, 일본의 국가 권위를 앞잡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즉석에서 하루노부에 보복하도록 명했다. 이에 하루노부(晴信)는 1609년 12월 12일, 데우스호를 공격해, 3일 후에는 침몰시켜 버렸다. 그러나 데우스호로 알려졌던 배의 본래 이름은 포르투갈語로 노샤 세노라 그라샤((Nossa Senhora da Graça) 인 것으로 알려졌다.⁸⁶⁾

하루노부는, 데우스호 격침의 공적으로 박탈당했던 옛 영토 회복을 시도하려고 오카모토 다이하치(岡本大八)에게 고액의 금품을 보낸다. 이것이 「오카모토 다이하치(岡本大八)事件」의 발단이 되었다. 결국 막부로부터 다이하치(大八)는 화형에 하루노부는 할복(切腹)을 명받았다. 하루노부도 다이하치도 키리시탄이었기 때문에 이에야스의 키리시탄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키리시탄 금교령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⁸⁷⁾

1612년 3월 21일에 이에야스는 에도·스푸·교토·나가사키 등 막부 직할지에 키리시탄 禁敎令을 발포하여 가톨릭의 금지와 가톨릭교회의 파괴를 명령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영주에게 가톨릭의 탄압이 명령이 하달된 것은 아니지만 영주(大名)나 하타모토(旗本)⁸⁸⁾가 그리스도교도(가톨릭)인 것이 발각되면, 영지와 녹봉이 몰수되는 엄격한 개역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그동안 간과되고 있던 키리시탄 다이묘의 존재도 용서되지 않는 시대에 들어간다.

1614年 1月 (慶長十八年十二月) 이에야스 는 南禪寺金地院의 승려인 수우덴

85) 外山幹夫著 『長崎奉行 江戸幕府の耳と目』 中央公論社 1988.12

長野暹編 『街道の日本史50 佐賀・島原と長崎街道』 1997. 吉川弘文館

86) 『國史大辭典』 11卷, P553, 『異國日記』

87) C.R Boxer, Notes on the Portuguese trade in Japan during the Kwanai period (1624-1643)', Shigaku, organ of the Keio Historical Research Society (hereafter KHRS), 1 (1963),pp4-7

88) 에도시대의 도쿠가와 막부 직속의 가신단 중 수입이 1 만석 미만으로, 의식 등 쇼군이 출석하는 자리에 참례하는 품격을 가지는 사람의 총칭

(崇傳)에게 명하여 파테렌 추방령(伴天連追放令)을 작성하게 하여 2 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의 이름으로 공포하게 한다, 여기에 파테렌(선교사) 과 키리시탄을 추방하는 이유로서 「일본이 원래 神國이며, 키리시탄의 도당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교(가톨릭)신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태이고 키리시탄의 확대에 의해 막부 전복의 위험성」 등을 내걸었다. 이것이 소위 게이초 금교령(慶長禁教令)이다.⁸⁹⁾

이처럼 이에야스(家康)가 게이초금교령을 공포하며 시행한 것은 이시기의 가톨릭교회나 수도회의 선교사들이, 일본 문화와 관습을 무시하고 불교와 신도를 믿는 무사중심의 에도 막부체제하에서 절이나 신사를 불태우고 불상 등을 우상숭배라 하여 대규모적으로 파괴한 異敎배척과도 관계가 있다. 필자는 선교사들의 우상숭배금지와 이교배척등도 관계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마닐라 갈레온 무역선의 기항과 참가, 그리고 범선기술자등의 요청도 진전되지 않고 히데요리(秀頼)측의 다이묘들이 키리시탄이 많았기 때문에 막부정권에의 안정을 위해 키리시탄 다이묘의 연대를 철폐하기위해, 「게이초금교령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세속의 권력」을 경시하며 「신의 권위와 교회의 神聖性」등을 최고상위에 두는 중세서양식의 접근은 서열사회인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가톨릭 신앙에의 경계감으로 이어지고 가톨릭신앙이 「민중의 반란」과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였다. 즉, 17세기의 무사계급사회인 막부체제에서 「유교적인 상하 관계의 신분 질서(土農工商 지배)」를 부정하며 「神 아래의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가톨릭 교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614년 11월 키리시탄의 대추방령이 이루어져 일본의 가톨릭신자 148명이 나가사키에서 마카오와 마닐라를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그중에는 高山右近와 内藤德庵등 키리시탄 다이묘도 포함되어 있었다.⁹⁰⁾

1616년 7월에 마닐라와의 교역에 관심 있던 이에야스가 75세에 사망하고 2대 쇼군 히데타다(秀忠)가 등장하였다. 이에야스의 사망 후에 중국선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의 무역선과 세 개의 항구 우라가(浦賀), 나가사키(長崎), 히라도(平戸)에 변화가 나타났다. 히데타다는 유럽선의 일본입항에 의한 포교활동을 우려하여 우라가를 폐지하고 나가사키와 히라도에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양 선박의 출입은 나가사키(長崎)와 히라도(平戸)의 2개의 항구만으로 제한되었다.⁹¹⁾

89) 岩生成一. 朱印船貿易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p177

90) 片岡 弥吉, 浦上四番崩れ—明治政府のキリシタン弾壓, ちくま文庫, 1991. p23

91) 張慧珍, 徳川家康の駿府外交体制——駿府外交の構想について, WASEDA RILAS JOURNAL NO.1, 2013, p18

히데타다의 방침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기항지였던 우라가 의 포기인데 이는 이에야스가 갈망하던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을 포기한 것과 다른 없는 일로 쇄국정책으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쿠가와 히데타다(秀忠)이후 일본은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는 사실상 교역이 없어졌고 종교의 포교와 관계없는 네덜란드상인과 중국 상인만이 나가사키에 출입하게 되는 소극적 무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7. 맺는말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은과 비단의 교역을 중심으로 글로벌화의 초기단계를 이룬 세계사적 사건이다. 신대륙의 누에바 에스파냐(멕시코)의 아카폴코와 마닐라간의 교역, 그리고 이것을 스페인본국과의 연결한 세계시스템의 인식하에 이뤄진 글로벌무역이다.

그러나 마닐라 아카폴코 무역을 더욱 글로벌로 인식하게 만든 배경은 중국인이 은(銀)을 구하려고 비단을 팔려고 와서 마닐라에 장기간 체류하여 글로벌시로서의 초기적 배경을 이룬 사건이며 (이는 필리핀에서의 화교, 중국계 메스티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임) 여기에 일본인도 일본의 銀으로 중국의 비단을 구하려고 이 교역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이다.

무역과 그리스도교의 포교의 일체화 즉 상교일치(商教一致)를 주장하는 스페인의 정책에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는 종교보다는 무역중심으로 접근하다가 부딪히며 파테렌(선교사)추방령과 26聖人殉敎사건, 게이초 금교령 등으로 가톨릭포교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대응한다. 특히 게이초 금교령(慶長禁敎令) 이후 당시의 키리시탄 무사계급은 가톨릭을 포기 하거나 영지(領地)를 포기하거나의 선택에 갈리고 평민들은 고문과 압박에서 종교를 포기하거나 순교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 일본의 키리시탄은 거의 사라진다.

무사중심인 도쿠가와 막부정권은 유교적인 상하 관계의 신분 질서(士農工商)를 부정하며 「神 아래의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가톨릭 교의에 반발하며 키리시탄 추방령으로 이어지면서 서양무역의 포기로 이어진다.

한편,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이익이 막대했기 때문에 복건에서 온 중국인이 마닐라에 정착하였고 이를 두려워한 스페인 마닐라정부는 非가톨릭교도 중국인의 추방정책으로 대응하여 가톨릭 세례를 받지 않는 중국인은 추방되고 나머지 중국인은 가톨릭을 수용하며 마닐라에 정착하여 특별한 필리핀으로서의 중국계 메스티조(Mestizo de Sanglay)가 등장하게 된다.

반대로 일본의 히데요시는 파테렌 추방령으로 선교사와 키리시탄을 마닐라와 마카오로 추방시킨다. 도쿠가와 막부는 한층 강경한 게이초 금교령으로 마닐라로 추방된 일본인들은 스페인령 필리핀정부의 대대적 환영을 받고 중국인 폭동 및 스페인 마닐라정부의 용병으로 참가하여 신임을 얻어 마닐라에 일본타운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강경한 가톨릭금교령은 종교 때문에 무역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은 쇄국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의 참가는 물론 스페인령마닐라와의 무역도 어렵게 되어 동남아 무역과 태평양무역을 상실하여 초기 글로벌무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參考文獻】

- 김동엽(2011), 15-16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과 변화: 포르투갈의 진출과 영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1권2호, 한국동남아학회
- 서성철(2013), 「삼각무역: 아카폴코 갤리언 무역의 탄생과 몰락」 『Asian journal of latin Studies』 26 . (2).
- 이덕훈(2011),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제4판, 도서출판 글누리.
- (2009), 일본의 경제발전과 무사도, 비엔엠북스.
- 伊藤禎一(1992), 『東南アジアの経営風土』 白桃書房.
- 岩生成一(1985), 『朱印船貿易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1966), 『南洋日本町の研究』 岩波書店.
- 高橋 保,(1991), 「16世紀におけるイペリア勢力のアジア進出と日本像の変容 : 黄金の国ジパングから銀の国ジャパンへ」 『Bulletin of the Sohei Nakayama IUJ』 Asia Development Research Programme 3.
- 山田義裕(2011), 「マニラ・ガレオン」 日本海事史学会. 9月例会.
- 周南京(1993), 「中国和菲律賓的歷史關係」 吳文煥編 『菲律賓與華人』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 小林幹夫(1992), 『新東南アジア華人事情』 日中出版, pp117-118.
- 池端雪浦・生田滋(1977), 『世界 現代史 -東南アジア現代史 II』 山川出版社.
- 菅谷成子(2000), 「18世紀中葉フィリピンにおける中国人移民社会のカトリック化と中国系メスティーソの興隆」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39冊、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 (2005), 「18世紀末葉のスペイン領マニラ「マニラ公正証書原簿」からみた植民地社会における中国人」『愛媛大学法文学部論集』人文学科編 18巻。
- 柳沼孝一郎(2013), 「スペイン帝国の環太平洋関係史～フィリピン諸島における植民統治施政の変遷～」『神田外語大学紀要』第25号。
- 増田義郎(1999), 「ポルトガルとアジア (1)」『国際関係紀要』8-2号、亜細亜大学国際関係研究所。
- 高橋 保(1991), 「16世紀におけるイベリア勢力のアジア進出と日本像の変容: 黄金の国ジバングから銀の国ジャパンへ」『Bulletin of the Sohei Nakayama IUJ』Asia Development Research Programme 3。
- 平川新(2010), 「スペインの対日戦略と家康・政宗の外交」『国史談話会雑誌』東北大学文学部日本史研究室、(50)。
- 神田千里(2011), 「伴天連追放令に関する考察:ルイスフロイス文書を中心に」『東洋大学文学部紀要』。
- 松田毅一(1982), 『秀吉の南蛮外交』新人物往来社。
- 片岡 弥吉(1991), 『浦上四番崩れ—明治政府のキリタン弾圧』、ちくま文庫,1991。
- 張慧珍(2013), 「徳川家康の駿府外交体制— 駿府外交の構想について」『WASEDA RILAS JOURNAL』 NO.1
- Adam Smith(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2(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
- Birgit Magdalena Tremml, *Illustrating Daily Routine in Multicultural Manila: A Clash of pre Modern States in Early Modern. Manila?* @ PACLAS, Manila,2008,Dec.
- Chuan, Hang-Sheng(2001), ““The Chinese Silk Trade with Spanish-America from the Late Ming Period to the Mid-Ch’ing Period.”” In *Studia Asiatica Essays in Asian Studies in Felicitation to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Professor Ch’en Shouyi*, ed. Laurence G. Thompson, 99-117. San Francisco: Chinese Materials Center.
- Charles Boxer(1958), “The Manila Galleon: The lure of silk and Silver.” 1565-1815. *History Today*. 8.
- (1967),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1549-165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63), *Notes on the Portuguese trade in Japan during the Kwanei period(1624-1643)’*, *Shigaku*, organ of the Keio Historical Research Society .
- 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2006), “Globalization Began in 1571”, in Barry K. Gills and William R. Tompson, eds.*Globalization and Global*

History, London.

- Debin Ma(1999), "The Great Silk Exchange: How the world was connected and developed " in Pacific. Centuries: Pacific Rim History Since the Sixteenth Century, eds. D.O. Flynn, L. Frost, and A.J.H. Lantham. (New York: Routledge).
- De Viana, Lorelei D. C(2001), Three Centuries of Binondo Architecture, 1594 - 1898: A Socio-Historical Perspective. España, Manila: University of Santo Tomas Press.
- Escoto, Salvador P(2000), "A Supplement to. the Chinese Expulsion from the Philippines." 1764-1779. PHILIPPINE STUDIES 48(2).
- Edgar Wickberg(1964), "The Chinese Mestizo in Philippine Histo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vol 5.no1:66.
- Guillermo Ruiz- Stovel(2009), Chinese Merchants, Silver. Galleons, and Ethnic Violencein. Spanish Manila, 1603-1686. Análisis 47,vol. 12.47-63.
- Hamashita Takeshi(1994), "The Tribute Trade System and Modern Asia". In Japanese Indu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ed. by A. J. H. Latham. London: Routledge: 97.
- John Leddy Phelan(1959), The Hispanization of the Philippines: Spanish Aims and Filipino Responses, 1565- 170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78.
- TePaske, John J(1983), "'New World Silver, Castile and the Philippines, 1590 - 1800.'" In Precious Metals in the Later Medieval and Early Modern Worlds,ed. J. F. Richards, pp. 425 - -46. Durha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27.
- Thomas W Barker(2009), Pulling the Spanish out of the 'Christian Century': Re-evaluating Spanish - Japanese relations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rasdition11.November.

要 旨

マニラガレオン貿易は 16世紀から19世紀まで銀と絹の交易を中心にグローバル化の初期段階を成した世界史的な事件である。新大陸のヌエバ・エスパーニャ(Nueva España:メキシコ)のアカプルコとマニラ間の交易,そしてこれをスペインとの連結した世界システムの認識の下に成り立った三角貿易である。

しかし,マニラアカプルコ貿易をもっとグローバルで認識するようにした背景は中國人が銀を求めようと絹を賣ろうと來てマニラに長期間滞留してグローバルシティとしての初期的背景を成した事件で(これはフィリピンでの華僑が登場するようになった背景なのに)。ここに日本人も日本の銀で中國の絹を求めようとこの交易に同参したという事である。しかし,カトリック布教と貿易を先に立てたスペインの政策に秀吉と家康は布教よりは貿易中心の政策を取ったが,伴天連(バテレン)追放令と26聖人殉教事件が起こり國家秩序を守るために慶長禁教令等でカトリック布教を禁止する政策で対応する。

特に武士中心社會である徳川幕府は儒教的な上下關係の身分秩序(士農工商)を否定して「神さまの下の万民の平等」を主張するカトリック教義への反撥してキリシタン大追放令に繋がれ,マニラ-アカプルコ ガレオン貿易の参加をあきらめて鎖國政策に突入するようになる。

Key Words : マニラガレオン貿易, 銀と絹の交易, バテレン(宣教師)追放令
慶長禁教令, 中國の絹, カトリック布教と貿易

투 고 : 2014. 5. 31
1차 심사 : 2014. 6. 14
2차 심사 : 2014. 7. 5